



대지 2416평, 연건평 788평의 한국 서울 성전의 모습.



① 정초식에서 머릿돌에 시멘트를 바르는 모습 왼쪽부터 헌터 장로, 핑클리 부대관장, 디아가 장로, 와엘 형제 ② 머릿돌에 시멘트를 바르는 핑클리 부대관장 ③ 머릿돌(한국 서울 성전)

있었지만 아름다운 경험도 많습니다. 이곳에는 물자도 없었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가난했습니다.

“처음으로 겨울에 방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날리고 있었으며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땅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판자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980년 10월 21일에 열린 서울 지역 대회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인용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정직하게 바친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잘 먹을 것이며, 보다 잘 입을 것이며,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게 될 것이며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예언자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빈곤이 산재해 있으나 많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번의 헌납 모임에서 핑클리 부대관장은 몇몇 충실한 말일성도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중에는 뉴욕 코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교회 회원이 되어 한국에서 신앙의 기초가 된 김 호직 형제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그런 다음 핑클리 부대관장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말씀을 한국어로 통역하고 있던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를 팔로 감싸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이 사람이 어려웠던 때와 그의 고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경 성전 헌납식 때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한 형제는 한 모임에서 폐회 기도를 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일본에 올 수 없었으며 정부의 법(부부가 함께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에 따라 한국에서 온 형제들은 누구도 아내와 함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혼자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는 받았지만 남편과 아내 및 부모와 자녀의 인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형제가 주님께 드린 기도는 내가 기억하는 몇 안되는 기도의 하나입니다. 그는…자신의 고국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 집을 헌납하는 오늘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핑클리 부대관장이 말씀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선교사들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온 것은 비교적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싹이 나고 자라 충만히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헌터 회장은 1981년 4월 1일에 한국에 성전이 건립될리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전세계의 회원들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성경에 언급된 성전의 간단한 역사와 말일의 성전의 회복에 관해 말씀하면서 성전의 목적을 설명했다.

“오늘 이 성전의 완공과 성전의 헌납은 여러분에게 가장 뜻깊은

건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이미 복음이 널리 전해졌지만 성전 헌납으로 인하여 믿음의 확장이 새롭게 더 널리 시작될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아시아 지역 회장인 윌리엄 브래드포드 장로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위한 길을 깨끗이 하는데 요했으리라고 여겨지는” 이 땅에서 온 전쟁에 관해 언급했다. “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서 대부분은 한국 교회의 제일 세대 회원들입니다.”

그는 감복하여 자신의 개척자 대상들에 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에서 말일성도의 첫 세대가 되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손자와 증손자들이 여러분에 관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승영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보아 왔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며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제일 보좌인 콕 디아가 장로는 가족을 영원히 연합시켜 주는 성전 의식 및 성약에 대해 말씀했다.

“교회에서 우리는 자주 ‘가족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만을 생각합니까?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늘 왕국에서 조직될 복합 세대의 가족을 의미합니다...오늘 이 성전에 계신 많은 이들은 시온 산에서, 특별히 조상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곳 아시아에서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축복이며 힘이 될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제이 보좌인 키드 블류 윌콕스 장로는 전에 옥둔 성전의 성전장이었으며 워싱턴 성전의

설계사였는데, 성전을 “빛의 집”이며 지식과 학문과 통찰력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성전을 위한 설계 계획을 제출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빛과 깨달음의 특성과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룬 여섯 모서리에 솟은 여섯 개의 뾰족탑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서울 성전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가장자리에서 솟아오른 여섯 개의 뾰족탑이 특징을 이루어 빛과 깨달음을 온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참으로 이 성전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햇불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며 교회 성전과의 관리 책임자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는 1921년에 이곳에 온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을 방문한 총관리 역원에 관해 말씀했다.

“그는 부산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갔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밟아본 말일의 첫번째 사도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기꾸찌 장로는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와 해롤드 비 리 장로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들 또한 교회 대관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어난 회원들



되었다. 또한 김 호직 박사의 개종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헌납식에서 대관장단의 특사인 데이비드 엠 케네디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성전장관과 성전 메이트론인 로즈메리 슬로버 자매도 말씀 순서를 맡았다.

다른 연사에는 성전장단 제일 보좌인 허 채 형제와 제이 보좌인 박 재암 형제가 있었다. *



성전에 모인 성도들



성전 대기실에 모인 회원과 구도자

한국에 큰 기쁨이 된 날



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힐클리 부대관장(가운데)

“이 보다 더 훌륭한 어떤 축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에 참석한 서울 영동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인 정 윤 형제는 말했다.

간단히 표현된 이 질문은 37번째 성전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느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모든 성전이 헌납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컸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각별했다.

지금까지 엔다우먼트를 받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 간 신권 지도자들이거나 사업 관계로 성전이 있는 나라로 여행을 한 사람들이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축복사인 김 기용 형제는 1982년 10월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 기뻐하나 한편 애석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나의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함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곳에 성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울 성전의 사무장인 전 중철 형제는 그의 아내와 1983년에 하와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세 딸이 인봉되었지만 아직도 몇 년 전에 죽은 세 자녀를 인봉하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다.

서울 서 지역 대표인 최 육환 장로는 정구적으로 성전에 가서 그의 조상을 위한 의식 사업을 수행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는 32대까지의 조상의 기록을 갖고 있다.

“계보 탐구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옵니다.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가져 가는 것은 첫째가 음식이고, 그 다음이 가족 기록입니다.”

한국 서울지역 대표이며 성전 위원회 위원장인 이 호남 장로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회원들이 가족 기록을 얻고 정리하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김 산 형제님은 66세대까지 계보 사업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날을 기뻐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이 장로는 말했다.

여기서 성전 헌납식까지의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음 —

1981년 4월 1일 제 12대 예언자이셨던 스페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키퍼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립을 발표하였다. 이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건립된 성전 중 37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일본 동경 성전 헌납 이후, 아시아 대륙의 첫번째 성전인 서울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성전은 곧 주님의 집이요, 가르침을 베푸는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베풀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서울 성전이야말로 북한과 중공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에의 선교 사업에 있어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1983년 5월 9일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23호에서 한국 서울 성전 기공식이 있었다. 이 기공식에는 12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와 한국 서울 성전 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이 호남 장로, 최 육환 장로, 한 인상 장로와 버틀러 서울 선교부장, 켈슨 서울 서선교부장



함께 노래부르는 기구씨 장로(오른쪽)와 홍 무광 부장(왼쪽)

8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미군 지방부장 등 초청 인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교회 본부 성전 건축 위원회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축 감독으로 Calvin S. Wardell 형제를 부름으로써 대지 2416평, 연건평 788평의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1981년 12월 5일 이 호남 장로가 한국 서울 성전 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가 부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 인상 장로와 최 옥환 장로가 고문이 되어 김 창선(VIP 위원), 김 용일(통역 위원), 박 재암(일반 공개 담당 위원), 허 채·Jon C Thorpe(안전 담당 위원), 홍 무광(인쇄와 정초, 음악 담당 위원), 박 래정(숙박 준비 위원), 손 승은(교통 담당 위원), 김 병희(헌납 준비 위원), 이 도환·Jenson·Jones(의전 담당 위원), 김 정열(공보 담당 위원), 서 원(재정), 전 종철(성전 사무장), 그밖의 최 동원, 이 순철 위원들이 성전 준비 위원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985년 10월 24일 초대 성전장으로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가 성임되었으며 3년 간에 걸친 성전 공사는 1985년 11월 15일 완공을 보았다.

11월 25일에 있었던 귀빈 일반 공개에 유 창순 전 국무총리, 김 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69명의 귀빈들이 참석했으며 26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일반 공개에는 연 12,700명이 일반 공개에 참여했다.

일반 공개가 끝난 후 12월 14일의 헌납식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1일부터 13일에 이르기까지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이 헌납식을 위해 바빴다.

1985년 12월 14일 9시 30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의 감리와 사회로 정초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개회 찬송에는 주기도문, 개회 기도를 최 옥환 장로가 해주었다. 말씀 순서에는 크래프트 장로, 헌터 장로, 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 도환 서울 선교부장의 폐회 기도로서

정초식을 마친 후 이어 10시 30분에 헌납식을 가졌다. 헌납식의 개회 찬송은 24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었고 개회 기도는 한 인상 장로, 폐회 찬송은 196장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회중이 함께 부르고 폐회 기도는 이 호남 장로가 하였다.

14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서울 동·영동 스테이크 성도들로 제일 반복 의식을 가졌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롯데 호텔에서 내한한 총관리 직원들과 스테이크 부장단 그리고 귀환 선교부장 부처와 선교부장 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회가 베풀어졌다.

이 모임에서 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이 있었고 고 김 호직 박사의 장남인 김 신환씨의 독창과 기쁘찌 장로와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의 보리밭 합창이 있었다. 멀리 LA에서 홍 병식 형제 부부와 LA 지부장 그리고 Salt Lake 한인 지부장 등이 참여하였다.

12월 15일 오전 8시에는 서울 북·강서 스테이크,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제삼 반복 의식을 가졌다. 오후 1시 30분에는 외국인 회원과 선교사를 위한 제삼 반복 의식, 오후 4시에는 서울 동대문·서울 서·인천 스테이크 성도를 위한 제삼 반복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와같은 서울 성전의 헌납 상황은 코리아 헤럴드,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경인일보, 주간종교 등 신문을 통해 사진과 같이 보도되었다.

한편 성전 사업 중의 하나인 가족 기록 접수 현황은 1985년 12월 20일 현재 가족 기록서 수 6702매, 제출자 수 337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의식 기록서로 준비된 것은 약 9400매로써 86년 2월 초부터 성전 의식이 집행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 ① 만찬회 광경
- ②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헌터 회장(오른쪽)
- ③ 유 창순 전 국무총리(오른쪽)에게 설명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들
- ④ 경비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
- 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성도들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국 서울 성전



만찬회에서 말하는 슬로버 성전장(오른쪽)과 한 인상 장로(왼쪽)

한국은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지만 늘 다시 되찾곤 했다고 한국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는 말한다.

이제 한국은 바야흐로 영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

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3년간 계속된 한국 동란이 끝난 1953년에 모든 건물과 시설은 파괴되고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 뿐이었다.”

그러나 우방 국가의 도움으로 근면한 한국인은 도시와 경제를 재건했다. 인구 천만의 서울은 오늘날 국제적인 사업, 산업 및 기타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86년에는 아시안 게임이 그리고 1988년에는 하계 올림픽이 그곳에서 개최된다. 놀랄 만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말일성도들에게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도심에서 약 5킬로미터쯤 떨어진, 아름다운 주택과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신촌에 세워졌다. 그곳 언덕에 세워진 한국 서울 성전에는 그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날의 여명을 알리듯 서 있다.

선교부장이었던 스펜서 제이 파머 형제는 1965년 슬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 대지를 구입했다.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는 몇 가지 사실들이 그곳이 우연히 그의 관심을 끈 대지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었다고 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그때로부터 몇 년 뒤 서울 지하철이 건설되었을 때 현재 성전이 서 있는 언덕 아래에 정거장이 놓였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은 이제 시민의 주요 교통 수단이 되었다”고 이 형제는 말한다. 성도들은 적절한 요금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성전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다.

1955년 8월 2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이 땅을 선교 지역으로 헌납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 폐허의 상태였다.

몇몇 한국인이 말일성도 군인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선교사가 도착하여 전도를 시작한 것은 1956년 4월이었다. 선교사들이 쉽게 입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동란이 발발하기 전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

교회에 입교한, 정부 관리였던 김 호직 형제의 덕분이었다. 그것은 최초의 한국 성도였던 김 형제가 수년 동안 고국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 하게 된 많은 공헌 가운데 하나다.

1950년대 중반, 한국인들의 생활은 그들을 둘러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식량과 기타 물자가 부족했다. 그것은 젊은 선교사들의 생활 또한 어려웠음을 뜻한다고 북극동 선교부장으로 7년간 봉사한 폴 시 앤드러스 형제는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간증은 강했으며 그들은 견디어 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1962년 대관장단의 지시에 따라 앤드러스 형제는 한국 선교부를 조직했다. 초대 선교부장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이 시작된 후 곧 그곳에 파견되어 봉사했던 게일 이 카 형제였다. 그는 앤드러스 선교부장 밑에서 봉사하였다. 새로운 선교부 산하에는 일곱 개의 지부가 서울과 부산, 대구에 있었다.

11년 후인 1973년, 한국에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13개 스테이크와 세 개의 선교부 그리고 약 41,000명의 말일성도들이 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기로 고대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상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국 서울 북 스테이크의 모래내 지부 회원인 이 인순 자매는 부친과 오빠의 도움으로 30대 조상까지 계보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서울 성전에서 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회원들이 성전을 통해 그들의 생애 주어질 축복을 고대하고 있다. “침례를 받은 후부터 저는 성전에 갈 수 있기를 고대해 왔습니다.”하고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의 이 원강 형제는 말한다.

오랫동안 성전을 고대해 왔지만 그 헌납식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성도들은 한국 최초의 계보

헌납식에 참석한
총관리 역할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인터 회장
십십인 제일 정원회의 아시아 지역
회장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십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며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일원인 야곱
야가 장로
십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며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일원인 키드
블류 윌록스 장로
십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며
성전과의 관리 책임자인 요시히코
구찌 장로

선교사였던 조 인식 장로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73세였던 조
인식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회원들로
부터 주님의 집에서 행해질 대리
사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강한
의욕으로 스테이크와 지방부를
수문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 성전에
어가지 못한 채 별세하고 말았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선교사들은
Mother Kim"을 기억할 것이다. 노년에
이르러 김 도필 자매는 지병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 스테이크의 청운
교회에 참석하였다. 그분은 많은 돈을
기부로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분이
"작은 돈"이라며 성전 기금으로
10,000원을 바쳤을 때 감독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독은 그것이 그분이
고 있는 모두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분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981년 4월 1일, 스펜서 더블류
볼 대관장으로부터 한국 성전 건립에
관한 소식을 들은 회원들은 이렇게
수문했다고 이 형제는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과 관련하여
하시는데 무엇이든?" 김 자매나
이 형제와 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 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활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

역사적인 주요 사건

- 1921년 :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가 한국을 방문함.
- 1950년 : 많은 말일성도 군인들이
참여한 U.N군이 도착함;
최초의 한국인 회원인 김 호직
형제가 미국에서 침례를 받음.
- 1955년 :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선교
사업을 위해 한국을 헌납함.
- 1956년 : 최초의 복음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시작함; 회원은 모두
64명이었음.
- 1962년 : 한국 선교부가 세워짐; 세
개의 지부가 있었음.
- 1967년 : 물몬경이 한국어로 발행됨.
- 1973년 : 스펜서 킴볼 대관장에 의해
한국 서울 스테이크가 조직됨.
- 1981년 : 한국 서울 성전에 관한 계획이
발표됨.
- 1985년 : 한국 서울 성전이 헌납됨.

한국 서울 성전의 첫 성전장 부름받음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

퇴역 육군 대령이며 한국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형제가 대관장으로부터 한국
서울 성전의 첫 성전장으로
부름받았다. 그의 부인인 로즈매리
자매가 메이트론이 된다.

유타주 프로보에 사는 만 72세의
슬로버 성전장은 1965년에 전역하여
브리감 영 대학교 정치과 교수가
되었다. 1978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은퇴하였으나 아직도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며 몇 가지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그는 오클라호마 태생으로서 아더 피
슬로보와 미니 맥다리스 슬로버의
아들이다.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차
대전 때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후
유럽, 극동, 와싱턴 시에서
군무하였다. 군 복무 기간에는 탁월한
군무로 인하여 많은 훈장과 상을
받았다.

그는 두 번의 지역 대표를 했고,
극동의 군인 회원 책임자, 지방부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으로 봉사했다.

한국 서울 성전장단. 왼쪽부터 허 캐 부장, 슬로버 성전장, 박 제암 부장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와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연차 대회가 있기 전 금요일에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는 그의 부인인 그웬에게 그에게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비서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은 반갑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연차 대회에서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변화가 그에게 온 것이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부름을 받던 당시 고슬린드 장로는 북미주 북서 지역 회장이었으며, 교회 신권과의 관리 책임자로 있었다. 그 전에는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선교사과의 관리 책임자로, 그리고 지역대표로 봉사했었다.

1972년 고슬린드 장로는 아론 신권 상호 향상회의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와 그의 부인 그웬 브래드포드는 아리조나 성전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1978년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고슬린드 장로는 모든 시간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기 전에 철강 계열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고슬린드 장로는 1928년 4월 18일에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일세와 안니타 잭 고슬린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교 사업을 마친 뒤 그는 유타 대학을 졸업했으며, 그곳에서 미래의 부인을 만난 것이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토박이로, 그는 스키를 매우 좋아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그와 고슬린드 자매는 3남 3녀의 부모로, 곧 아홉번째의 손자를 보게 된다.

그의 부친은 늘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은 그가 처음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는데, 같은 시기에 그의 부친은 인근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직책에서 봉사할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는 부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들의 사랑과 내 생애에 끼친 깊은 영향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을 받을 때 김볼 대관장님을 방문한 이래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있으며 그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한다.

“어린 소년으로 나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봉사의 부산물이란 것을 발견한 것은 선교사로 부름받고 난 뒤였습니다.”하고 로버트 엘 백맨 장로는 말한다. 그후 봉사는 백맨 장로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 왔다. 최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부름을 받기 전 그는 유타주 의회에서 일했으며, 감독단, 스테이크 부장단, 청남 본부 회장, 보좌 및 임원, 지역

대표, 선교부장 등 여러 가지 교회 직책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미국 소년단 국제 집행 임원의 한 사람이며 국제 소년단 미합중국 창설 회원이기도 하다.

1922년 3월 22일 솔트레이크시티에 리그랜드 피 백맨과 에디스 프라이스 백맨 사이에서 태어난 로버트 리그랜드 백맨은 소년 시절의 일부를 그의 부친이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남아프리카에서 보냈다. 십대 소년으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그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남아프리카에서 남학교에 다니다 온 그는 무척 부끄러워했다. 그는 북부 제주 선교부로 부름을 받은 것이 그의 생애를 봉사의 원리로 전환시킨 계기 되었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군복무를 마친 그는 법률을 공부하러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그의 의도는 오로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었으나 솔트레이크시티에 오던 첫날 버스에서 감독을 만났으며,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집사 정원회 고문직에 부름을 받았다.

1941년 그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버지니아 피켓 자매와 결혼을 하였다. 그후 그들은 일곱 명의 딸을 낳는 축복을 얻었다.

1949년 유타 법대를 졸업한 뒤 1966년 부인과 함께 큰 기쁨을 누렸던 북서 제주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백맨 장로는 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선교 사업의 부름을 고대했으나 1978년 4월 1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부름을 받았다.

최근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부름받았다. 그의 새로운 부름은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그에게 줄 것이다.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맞춘 삶이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하고 그는 말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낀다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의 생애는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 주고 있다. *